

# 조선 후기 북학론(北學論)의 수사(修辭) 전략과 중국 기술 도입론\*

임종태\*\*

1. 서론
2. 정책 의제로서의 북학론
3. 박제가(朴齊家) 『북학의(北學議)』의 수사 전략
4. 북학론의 기술관과 중국 기술 도입 정책
  - 1) 중국과 조선의 비교
  - 2) 중국 배우기
  - 3) 북학의 이론적 정당화로서 정약용의 “기술 진보론”
  - 4) 조선 사회 개혁의 동력으로서 기술 도입
  - 5) 국가(정부) 주도의 기술 도입론
5. 북학 정책의 실천 - 맺음말

## 1. 서론

영조(英祖)를 이어 새로운 임금 정조(正祖)가 보위에 오른 직후인 1770년대 말에서 1780년대 초까지의 몇 년 사이, 서울의 몇몇 학자·관료들 사이에서 오늘날 “북학론(北學論)”이라 불리는 새로운 정책 의제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북학론은 청조(淸朝) 중국의 발전된 기술과 상공업, 이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사회

\*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비평을 해 주신 김영식·마리온 에거트(Marion Eggert)·구범진·이정·최형섭 교수, 한중외교사 연구팀의 동료들, 2020년 봄 동양과학사통론 세미나 참여 학생들, 그리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교수.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 사회를 부강한 나라로 탈바꿈시키자는 주장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 북학론자들은 당시의 주류 성리학풍에서 부차시 되어 온 기술적 정교함과 세련된 물질문화를 중시하는 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제기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조선은 문명의 온전한 담지자라기보다는 적어도 사회의 일부분에 관한 한 외부의 모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나라로 재규정되었다.

물론 18세기 말의 시점에서 북학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학은 서울 지역의 일부 인물들에 한정된 의제였으며, 그들의 주장이 정부의 산업·기술·문화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북학론의 중요성은 당대보다는 다가올 미래, 조선 사회와 산업 및 과학기술의 이후 진로와 관련지을 때 더 두드러진다. 북학의 지향은 후대로 갈수록, 특히 19세기 말 이후 서구적 근대화의 의제가 엘리트 사회에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호소력을 발휘했고, 이는 20세기 역사학자들의 실학(實學) 서사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한 역사가가 박제가(朴齊家)를 “기적의 선각자”라고 부른 데서 드러나듯,<sup>1)</sup> 실학의 역사 서술에서 이른바 북학과는 성리학이 만연하던 조선 사회에서 상공업과 과학기술 중심의 근대 사회를 예견한 예외적 선각자들로 평가받았다.<sup>2)</sup> 북학론에 대한 20세기 사학(史學)의 높은 평가는 최근 비판가들에 의해 근대주의적 목적론이라고 비판받곤 하지만,<sup>3)</sup>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가들을 포함한 20세기 한국의 엘리트들과 18세기 말 북학론자들이 처한 공통의 사회 문화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두 집단의 유사한 인식에 기인한 면이 있다. 이들은 공히 중심부 물질문명의 주변부에 처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문명의 도입을 통한 자기 사회의 문명화(또는 근대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시기의 북학론을 조선 사회의 기술 및 산업

1) 金龍德, 1981 『朴齊家の 經濟思想: 奇蹟의 先覺者』 『진단학보』 52, 153-156면.

2) 조선 후기 실학을 구성하는 여러 조류 중에서도 소위 북학과(또는 이용후생학과)의 선진성에 대해서는 학계의 폭넓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예컨대, 지두환은 근대사상으로 실학을 정의한다면 오직 북학과만이 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두환, 1987 『조선 후기 실학연구의 문제점과 방향』 『태동고전연구』 3, 103-148면.

3) 허태용, 2006 『“북학사상”을 연구하는 시각의 전개와 재검토』 『오늘의 동양사상』 14, 315-354면.

발전을 추구한 일종의 정책 의제로 간주하고, 그 중에서도 북학의 기술 정책과 그 바탕에 전제된 사회 문화적 가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북학론이 기술 도입과 산업 진흥 정책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의견 일치를 보이지만, 정작 그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북학론의 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연구가 많지 않다.<sup>4)</sup>

북학론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그 핵심 의제인 기술 및 산업 정책보다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사상” 또는 “세계관”의 측면에 더 주목했다. 북학론은 무엇보다도 조선 후기에 등장한 근대 사상의 맹아로 주목받았고, 따라서 그것이 제기한 “중세적” 중화주의에 대한 비판, 청나라 문물에 대한 개방적 인식,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능하게 했던 “인물성 동론(人物性 同論)”의 성리학설 등 북학론을 구성하는 사상적 요소가 자연스레 연구의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심지어 북학론의 경제·기술 정책을 다룬 연구들도 대개는 그에 담긴 선진적인 경제 “사상”, 기술 “사상”의 측면에 주목했다.<sup>5)</sup> 흥미로운 것은 과학사 학자들이 북학의 기술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한 가지 이유 또한 그 속에 “사상적”으로 그리 불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박성래는 박제가가 수레, 벽돌 등 개별 기술에 대한 관심을 넘어 기술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평했는데,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는 추상화된 과학 “이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20세기 후반 과학기술사 학계의 경향이 전제되어 있다.<sup>6)</sup>

4) 북학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꽤 많은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金龍德, 앞의 논문; 이현창, 2011 『조선 시대 최고의 경제 발전안을 제시한 박제가』, 민속원; 이현창, 2013 『楚亭의 이용후생사상과 부국론』,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조정 박제가 연구』, 사람의 무늬, 109-192면 등을 들 수 있다. 북학론의 기술관에 대해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로는 박제가를 다룬 박성래, 1981 『박제가의 기술도입론』, 『진단학보』 52, 202-204면; 李英嬋, 2011 『楚亭 朴齊家の 技藝論 研究』,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순수하게 북학과로 분류된 인물은 아니지만 북학론의 기술 정책을 수용, 발전시킨 정약용을 다룬 김영호, 1989 『정다산의 과학기술사상』, 『동양학』 19, 277-300면; 송성수, 1994 『丁若鏞의 技術思想』, 『한국과학사학회지』 16-2, 261-276면; 김영식, 2014 『정약용의 문제들』, 해안, 142-183면 등을 들 수 있다.

5) 20세기 북학론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허태용, 앞의 논문 참조.

6) 박성래, 앞의 논문, 204면. 비슷한 이유로 이현창도 박제가의 경제 사상이 그 학술적 수준

하지만 북학론이 선진적인 사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수준은 높지 않다는 기묘한 양가적 평가는 북학론자들이 자신의 정책 의제를 제기하면서 채택한 독특한 글쓰기 방식과 그 바탕의 수사 전략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학론자들이 체계적이며 추상적인 기술(또는 경제)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기술 정책 의제를 “이론화, 추상화 정도가 낮은” 방식으로 제기했는지 이해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18세기 후반 박제가를 비롯한 북학론자들이 조선 사회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새로운 유형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하려 했으며, 이때 이들이 기성 엘리트 집단과 자신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핵심 표지가 바로 “연행(燕行)”, 즉 문명 중심지로의 여행 경험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자신의 개혁 의제를 구체적인 여행 경험을 통해 제기하려 한 『북학의(北學議)』의 기술 담론은 바로 스스로를 “여행자이자 개혁가”라는 새로운 유형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박제가의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 2. 정책 의제로서의 북학론

1930년대 초 최남선(崔南善)이 연암 일파의 인물들을 “북학과”라고 명명한 이래 최근까지 많은 역사가들이 북학 사상의 정의, 북학과의 구성과 범위, 그리고 그것이 조선 후기 실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았다.

애초 최남선의 단계에서 청나라의 모델을 받아들여 조선의 상공업을 진흥하자는 취지의 정책 의제로 비교적 좁게 이해되던 북학론은, 이후 노론 낙론이 주창한 “인물성 동론”의 성리학(또는 그 “변용”), 또는 성리학의 윤리적, 형이상학적 강조와는 결을 달리하는 도시풍의 문화적 감수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와 함께 애초 박지원(朴趾源), 홍대용(洪大容), 박제가, 이덕

에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창, 앞의 논문(楚亭의 이용후생사상과 부국론), 146면.

무(李德懋) 등 연암 일파의 인물로 한정되었던 북학파의 외연도 넓어졌으며,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북학파라는 용어 대신 “연암 일파의 북학 사상”과 같이 그 의미와 외연이 더 분명한 대안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sup>7)</sup>

북학 또는 북학파라는 개념의 모호함은 18세기 말 비교적 분명히 정의될 수 있는 학문적 기획을 공유하면서 집단적 결속력을 지닌 하나의 학파로서 “북학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편에 전거를 둔 북학 개념은 중국을 모델로 한 외이(外夷)의 자발적 문명화(즉, 用夏變夷)의 시도를 칭송하고 장려하는 의미로 전근대 동아시아 유자(儒者)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 이래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해 온 한국인들의 노력 모두를 북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조선 시기의 경우, 명청(明清) 왕조의 수도가 마침 “북경(北京)”이었던 만큼, 부경사(赴京使) 등의 경로를 통해 그곳의 문물을 배워오는 행위를 북학(北學)으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을 수도 있다.<sup>9)</sup>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북학의 의제가 완전한 형태로 제안된 것은 1778년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서였다. 그해 가을 초고가 완성된 『북학의』에서 그는 고전적 의미의 북학 개념에 몇 가지 새로운 이념적, 정책적 요소를 덧붙여, 20세기 역사학자들이 북학 사상이라고 부르게 된 독특한 경세론, 또는 사회 개혁안을 제안했다. 물론 북학의 의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박제가가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다. 『북학의』에 붙인 박지원의 서문에 따르면, 북학론은 이미 이들의 연행 이전부터 연암 일파 인물들에 의해 함께 논의되던 것이었다.<sup>10)</sup> 그보다

7) 허태용, 앞의 논문이 이에 대한 유용한 리뷰를 제공한다.

8) 17세기 초의 인물 張維(1587-1638)의 『谿谷集』에 붙인 金尙憲의 서문에는 “신라 이래 北學하는 선비들이 점차 흥기했으나 오직 崔致遠만이 세상에 이름을 날렸고…(羅氏以來, 北學之士漸興, 惟孤雲名世)”라는 표현이 있다. 張維, 『谿谷集』 序(金尙憲) (한국고전종합 DB: ITKC\_MO\_0333A\_0010\_010\_0030\_2003\_A092\_XML).

9) 숙종 대 관상감의 천문학자 許遠은 과거 효종 대 金尙範이 청나라의 새로운 역법 時憲曆을 배우기 위해 북경에 파견된 일을 “북학”이라고 불렀다. 허원, 1986 『현상신법세초류취』 『序』, 한국과학사학회 편, 『한국 과학기술사 자료 대계: 천문학편』 제9책, 여강출판사, 1-198 중 3-5면.

10) 박제가(안대회 옮김), 2013 『완역 정본 북학의』 “북학의서(박지원)”, 돌베개, 33-34면.

더 일찍이 홍대용은 1765년의 연행과 이후 지식 사회에서 열띤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행 관련 저술을 통해, 북경으로의 여행을 조선 엘리트 지식인의 주요한 문화적 실천으로 부각시켰으며 청조와 그 문화에 대한 경직된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성대중의 경우는 1776년 연행하는 서호수(徐浩修)에게 준 편지에서 천문역법, 토지와 성곽의 제도 등 청나라에 남아 있는 중화의 유제를 배워 와서 자강(自強)의 술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후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전면화되는 “학중국(學中國)”의 의제를 분명한 형태로 처음 제안했다.<sup>11)</sup>

박제가의 『북학의』 집필 이후 몇 년 사이에 그와 정책 의제를 공유하는 저술, 유사한 정책 제안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 제출되었다. 1780년의 사행을 토대로 저술된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그리고 1782년 사행 경험에 입각하여 저술된 홍양호(洪良浩)의 연행록 『요연잡기(遼燕雜記)』와 그가 이듬해 7월 정조에게 올린 “진육조소(陳六條疏)”가 대표적이다.<sup>12)</sup> 특히 당시 고위 관료였던 홍양호의 상소는 수레와 벽돌 기술의 도입 등 북학론의 핵심 의제를 군주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음으로써 이후 몇 년간 북학이 정부의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학의 의제를 제기하고 실천한 사례는 정조 사후 19세기 초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북학 전담 기관으로 이용감(利用監)의 설치를 제안하고 서유구(徐有渠)가 중국의 선진 농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3)</sup>

11) 이러한 이유로 박희병은 성대중을 북학론의 첫 사례로 보았다. 박희병, 2013 『범애와 평등』, 돌베개, 215-221면. 북학론의 기원에 대한 여러 논의는 김영식, 2018 『중국과 조선, 그리고 중화: 조선 후기 중국 인식의 전개와 중화 사상의 굴절』, 아카넷, 219-249면 참고.

12) 홍양호의 「진육조소」는 『정조실록』 7년(1783) 7월 18일: 『승정원일기』 같은 날 기사에 실려 있다. 홍양호의 연행 저술 및 그의 북학론에 대해서는 정우봉, 2016 『이제 홍양호의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63, 67-95면 참조.

13) 정약용의 “북학”은 그가 『경세유표』에서 언급했듯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박제가의 『북학의』에 직접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1790년을 전후한 시기 한강 배다리, 수원 화성의 건설에 테크노크라트로서 적극 관여했는데, 이러한 실제 국가 건설 사업을 기획한 경험이 그의 북학론과 연결되는 지점도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약용(이익성 옮김), 1997 『경세유표』 冬官 工曹 제6 事官之屬, “이용감”, 한길사, 제1권, 220면. 서유구의 중국 농법 도입론에 대해서는 정명현, 2014 『서유구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 창출론』, 박사학위 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참조.

물론 이상의 인물들을 하나의 학파로 묶어 “북학파”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각 각의 논자들이 북학의 의제에 헌신하는 정도, 그들의 학문과 경제론에서 북학의 의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 나아가 북학론의 구성 요소 중 각 인물마다의 강조점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제가의 경우 북학론이 그의 경제 사상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약용의 경우는 그의 방대한 경제론 및 사상 체계의 일부를 점하고 있을 뿐이었다. 청조 중국과 그 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북학론자들은 상당한 편차를 보여서, 중국 문화의 전면적 수용을 주장한 이와 비판적 취사를 주장하는 이들로 갈라졌다.<sup>14)</sup>

하지만 이와 같은 사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제로서의 북학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논자들 사이에 확산 공유되었다. 북학론자들의 여러 저술에는 구체적 정책 의제와 그 정당화 논리에서 비슷한 내용이 심지어는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 공유점은 크게 문화적 정향의 차원과 구체적 정책 의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5)</sup>

우선 문화적 정향의 차원에서 보자면, 북학론은 『맹자』 “등문공”에서 제시된 고전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1) 중국 문화의 학습을 통한 자기 사회의 문명화[用夏變夷]라는 목표,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2) 북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문명의 장소로의 여행[北學於中國]을 핵심적 모티프로 삼고 있다. 박제가에 의해 정식화된 북학론은 이 두 고전적 모티프를 18세기 말 조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독특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핵심은 문명 또는 그 소재지로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있을 것이다. 그는 조선의 양반들이 야만시하던 청나라와 그 수도 북경을 (문명 그 자체가 아니라면) 적어도 문명의 소재지로 보았으며, “이용(利用)과 후생(厚生)”, 즉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세련된 기술과 발전된 산업을 조선이 갖추어야 할 문명의 핵심 요소로 승격시켰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재정의는 주자 성리학이 주도하는 조선 양반 사회의 풍토에서 파격적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정당화 논리도

14) 예를 들어 박제가와 이덕무의 입장을 대조한 김대중, 2013 『‘내부⇄외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이덕무와 박제가』 『한국사연구』 162, 165-209면 참조.

15) 이하 두 문단에서 이루어진 북학론 소개는 김영식, 2018 앞의 책, 219-249면 등을 참고했으며, 일부는 본 논문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기술, 산업, 무역과 같은 물질문화에 대한 강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학론자들은 이용과 후생을 도학(道學)의 고상한 목표인 정덕(正德)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위치시켰다. 반청 정서와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시 청나라에서 목격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고대 이래 중국의 고상한 유산임을 강조했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그 실행 방식에서도 박제가로부터 정약용에 이르는 북학론자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레 및 벽돌의 제작, 제지, 목축 기술의 도입을 주장했으며, 특히 수레의 제작 보급을 통한 전국적 물류의 혁신은 북학론을 상징하는 의제로 부각되었다. 나아가 이들은 기술 도입의 방식, 도입의 주체, 도입 기술 확산의 방식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개진했다. 이들은 공히 중국 기술의 도입에 연행 사절의 루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국내의 토착 기술을 개선하여 활용하기보다는 오늘날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으로 불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통해 우수한 중국 기술을 그대로 모방·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기술을 도입한 뒤 관료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방 관청과 민간에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는 정부 중심의 기술 도입 및 확산 방식을 제안했다.

### 3. 박제가(朴齊家) 『북학의(北學議)』의 수사 전략

이상에서 요약한 북학론의 기본 윤곽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데 비해, 그것이 제기된 방식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박제가의 『북학의』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식 사회에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것에 담긴 내용의 파격성은 물론 그 내용이 표현된 방식과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 전략이 지닌 새로움에도 기인한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sup>16)</sup> 이 절에서는 박제가의 『북학의』를 중심으로 하여 북학론자들이 채택한 글쓰기 방식과 수사 전략에 대해 살

16) 예외적으로 김대중은 중국과 조선 사회의 비교에서 박제가가 구사한 극단적 이분 구도에 주목했다. 앞의 논문.

펴볼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박제가는 북학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인물로서 자신의 의제에 “북학”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에 대한 가장 적극적·비타협적 옹호자로 살았다. 그런 점에서 박제가의 북학론은 그 의제의 내용에 있어서나 그것이 제기한 방식에 있어서나 조선 후기 북학론의 순수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로서든 부정적인 의미로서든 당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비쳤다.<sup>17)</sup>

글쓰기 방식에서 박제가의 『북학의』가 지닌 독특함은 그것이 자신의 연행 경험에 입각해서 조선 사회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작품, 즉 연행록(燕行錄)과 경세서(經世書)라는 두 문헌 장르의 혼합물이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sup>18)</sup> 그 이전 『북학의』와 유사한 시도를 담은 사례로는 약 200년 전 조헌(趙憲, 1544-1592)이 쓴 『동환봉사(東還封事)』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선조(宣祖) 7년(1574)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북경에 다녀온 조헌은 자신이 견문한 명나라 제도의 장점에 조선 사회의 상응하는 측면을 비판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혁 구상을 정리하여 선조에게 올렸던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박제는 조헌을 자신이 주창하는 북학론의 선구자로 꼽았는데, 비슷한 구도를 택한 『북학의』의 글쓰기 또한 『동환봉사』를 의식적으로 참조한 것일 수 있다.<sup>19)</sup> 다만 조헌의 상소는 선조 임금에 의해 “풍기와 습속의 차이를 헤아리지 않고 (중국의 제도를) 억지로 본받아 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더 이상의 유사한 시도가 이어지지 않았던 데 비해,<sup>20)</sup> 박제가의 『북학의』

17) 박제가의 중국의 문물에 대한 그의 지극히 우호적인 태도로 인해 당시 사람들에게 의해 “唐魁”로 조롱받았다. 안대회, 『완역 정본 북학의』 「해제」, 471-503면.

18) 박제가의 『북학의』가 연행록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에 대해 학계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임기중이 편찬한 “연행록 총서”에는 『북학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여행 서사가 극도로 억제되어 있다고 해도, 『북학의』는 박제가의 연행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며 그런 점에서 연행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19) 하지만 허태구는 박제가가 다분히 성리학적 세계관의 범위 내에 속해 있던 조헌의 구체적인 개혁안까지 계승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허태구, 2020 『重峯 趙憲의 中國과 中華』 『한국학연구』 56, 433-464면. 조헌의 『동환봉사』, 그리고 그가 남긴 별도의 연행록인 『朝天日記』를 비교한 후마 스스무의 연구도 참조. 후마 스스무(신로사 외 옮김), 2019 『조선연행사와 통신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3-263면.

20) 『宣祖修正實錄』 권8, 7년 11월 1일: “上答曰, 千百里風俗不同, 若不揆風氣習俗之殊, 而强

는 그것의 저술 이후 홍양호의 『요연잡기(遼燕雜記)』, 이희경(李喜經)의 『설수외사(雪岫外史)』와 같은 유사한 후속 시도가 이어짐으로써 북학론에 입각한 “연행록·경세서”의 유행을 선도했다.<sup>21)</sup>

경세서와 연행록의 결합으로서 『북학의』의 글쓰기는 기존의 경세서와 연행록 전통 모두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북학의』는 구체적 여행 서사를 극도로 억제하고 대신 사회 개혁 의제를 전면부에 부각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행록과 달랐다. 18세기의 연행록 저자들이 그 속에서 자신의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는 많지만, 대개는 여행 중의 구체적 일화에 대한 서술 가운데 그것을 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북학의』에서는 연행 일정,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관한 구체적 서술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신 청나라 사회의 특징 측면들을 대상으로 한 항목 별 서술 방식을 채택하고는, 각각의 항목에서 자신이 관찰한 청나라 사회의 우수한 면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뒤 이를 낙후한 조선 사회와 비교하고 있다. 이때 여행과 관계된 일화는 청나라 문물에 대해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묘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맥락에서 간혹 짧게 삽입되는 정도였다.

다른 한편, 경세서의 전통에서 보아도 『북학의』는 중요한 일탈을 보인다.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 정약용의 『경세유표』와 같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경세서는 저자의 독특한 개혁적 의제를 『주례(周禮)』와 같은 고전적 전거에 대한 해석, 과거 역사의 선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하고 또 정당화했다.<sup>22)</sup> 물론 박제가 또한 『관자(管子)』, 『주례』, 『상서(尙書)』 등의 전거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개혁 의제를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는 연행의 과정에서 얻는 경험적 관찰에서 끌고 왔으며, 그에 비해 경전과 역사적 선례를 이용한 논의는 상당히 억제되어 있다.<sup>23)</sup> 경세문과 연

欲效行之, 則徒爲驚駭之歸, 而事有所不諧矣.”

21) 홍양호의 연행 저술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는 그의 『요연잡기』에서 채택된 서술 방식의 새로움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실은 그 대부분의 특징이 『북학의』에서 몇 년 앞서 나타나고 있다. 정우봉, 앞의 논문.

22) 정호훈, 2005 『17세기 체제 개혁론의 전개와 『周禮』』 『한국실학연구』 10, 157-190면.

23) 박제가가 인용한 고전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헌창, 앞의 논문(楚亭의 이용후생사상과 부국론), 151-161면.

행록이 혼합된 박제가의 새로운 글쓰기 방식은 그의 독특한 신념, 즉 조선 사회의 개혁은 역사적 선례, 옛 성인의 가르침,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조선 사회 바깥에 구체적으로 실재하며 자신이 직접 목격한 선진 문화의 모델에 입각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제가가 경세서와 여행록을 혼합한 새로운 장르를 시험한 것은 여행가와 경세가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엘리트를 창출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북학의』의 자서에서 그는 신라의 최치원(崔致遠), 조선 중기의 조헌(趙憲),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여행가·경세가”의 계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고운 최치원과 중봉 조헌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비록 사는 시대는 다르나 말을 끄는 마부가 되어 그분들을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당나라에서 진사(進士)가 된 최치원은 동쪽으로 돌아온 뒤로 신라의 풍속을 혁신하여 중국의 수준으로 나아갈[進乎中國] 방도를 고민했다. … 조헌은 질정관(質正官)의 자격으로 연경에 들어갔는데, 그가 동쪽으로 돌아와 [임금께] 올린 “봉사(封事)”[東還封事]에는 남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좋은 것을 보면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적극적이고 간절한 정성을 담았으니,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적의 풍속을 변화시키고자[用夏變夷] 애쓰는 정성이 아닌 것이 없었다. 압록강 동쪽 땅에서 천여 년을 지내 오면서 규모가 작고 외진 [이 나라를] 한번 개혁하여 중국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고자[至中國] 노력한 사람은 오로지 이 두 분밖에 없었다.<sup>24)</sup>

1778년 진주사(陳奏使) 편에 여행하여 중국 문물을 관찰하고 그 중에서 조선에 채택하여 이용후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한 자신의 행위는 바로 최치원, 조헌의 선례를 계승한 것이었다. 박제가는 이 계보를 고대 중국의 인물로까지 소급시켰는데, 그 인물은 공자·맹자와 같은 성인이 아니라 『맹자』 등문공(滕文公) 편에서 “북쪽으로 여행하여 중국에서 공부했다”고 칭송받은 모범적 야만인 진량(陳良)이었다. 그가 자신의 여행록·경세서를 『북학의』라고 이름 지은 것은

24) 안대회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25-26면. 안대회의 교감과 번역을 따랐고 필자가 일부 수정함. 이하 같음: “余幼時, 慕崔孤雲·趙重峰之爲人, 慨然有異世執鞭之願. 孤雲爲唐進士, 東還本國, 思有以革新羅之俗而進乎中國, 遭時不競, 隱居伽倻山, 不知所終. 重峰以質正官入燕, 其東還封事, 勤勤懇懇, 因彼而悟己, 見善而思齊, 無非用夏變夷之苦心. 鴨水以東千有餘年之間, 有以區區一隅欲一變而至中國者, 惟此兩人而已.”

바로 이 고사에서 따온 것이었다.

박제가가 진량에서 최치원, 조헌을 거쳐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여행가·경세가 의 계보를 구성해 낸 것은 당시 조선 주자학의 도통(道統) 관념을 비판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고대의 성인에서 주희(朱熹)를 거쳐 이황(李滉), 이익(李珥), 송시열(宋時烈)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주자학의 도통 관념은 이미 문명화된 존재로서, 또는 청조가 지배하는 천하에서 중국 문명의 정통적 계승자로서 자부한 조선 양반 엘리트의 자기 정체성 전략을 뒷받침하는 장치였다. 박제가의 새로운 계보는 바로 이러한 전략에 대한 부정을 뜻했다. 조선은 아직 중국이 아니며, 바깥에 존재하는 문명 소재지로의 여행을 통해 그 문명을 학습해야 할 나라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문명화의 사명은 진량, 최치원, 조헌, 그리고 박제가 자신과 같이 중국으로의 순례를 통해 그 문명을 체화한 새로운 유형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었다.

한국사에서 자신의 선례가 최치원, 조헌밖에 없다고 한 것에서 드러나듯, 박제가의 여행가·경세가로서의 새로운 엘리트가 조선 사회에서 소수이자 예외적 존재들을 강조했다. 그는 연행을 통해 선진적인 중국의 문물과 비교하여 자기 사회의 후진성을 깨닫고는 중국과 대등한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因彼而悟己, 見善而思齊] 욕망을 갖게 된 선각자로 자신을 제시하고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 양반 엘리트와 스스로를 구분지었다. 이러한 예외성의 전략은 스스로를 낙후한 사회의 계몽자로서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스스로를 그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한 정책 의제를 자신의 독특한 여행 경험을 통해 제시하려는 여행가·경세가의 전략 자체가 지닌 인식론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경험이란 본성상 주관적이며 단편적이기 때문에, 사회 개혁 의제가 일반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여행자의 주관적 경험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해야 할 필연적 근거도 없다.<sup>25)</sup> 실제로 1778년

25) 근대 초의 유럽은 여행, 채집, 실험 등 주관적, 단편적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지식 공동체가 공유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사실(fact)”로 만드는 사회적, 문학적 기법을 창안했고, 이는 오늘날 17세기 “과학 혁명”이라 불리는 지적 변화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Steven Shapin · Simon Schaffer, 1985 *Leviathan and the Air-Pump: Hobbes, Boyle, and the*

초고 집필 이후 수년 사이에 덧붙여진 논설 『북학변(北學辨)』에서 박제가의 자신의 연행 경험이 조선 사회에서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sup>26)</sup>

내가 북경에서 돌아왔더니 나라 안의 인사들이 문이 닳도록 찾아와서 “저들의 풍속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 그들이 평상시 내뱉는 말이 곧 문자이고, 그들이 사는 집은 휘황찬란합니다. 다닐 때는 수레를 타고, 무지개다리가 놓이고 푸른 가로수가 늘어진 거리를 덜컹덜컹 지나는 수레와 왁자지껄 오가는 인파는 그림 속 풍경입니다. ...”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망연자실하여 곧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실망하고 떠나며 내가 오랑캐를 편든다는 눈치였다.<sup>27)</sup>

자신의 증언에 대한 타인들의 불신을 박제가의 청나라를 이적시하는 조선 사람들의 선입견 탓으로 돌렸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胡]라는 글자 하나로 천하의 모든 것을 말살하고 있다. 반면에 나만은 ‘중국의 풍속은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다.<sup>28)</sup>

*Experiment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eter Dear, 1985 “Totius in verba: Rhetoric and Authority in the Early Royal Society”, *Isis* 76, pp.145-161; Harold J. Cook, 2005 “Global Economy and Local Knowledge in the East Indies: Jacobus Bontius Learns the Fact of Nature”, Londa Schiebinger and Claudia Swan (eds.), *Colonial Botany: Science, Commerce, and Politics in the Early Modern Worl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100-118 등을 참조.

26) 안대회의 교감 번역본 『북학의』에는 『북학변』이라는 제목의 글 세 편이 외편에 실려 있는데, 이것들이 『북학의』의 모든 이본들에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세 번째 글은 끝에 “신축년 겨울”(1781 또는 1782)로 집필 시기가 밝혀져 있다. 박제가 자신의 초고본에는 『북학변 2, 3』이 박지원의 서문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고 한다. 이 세 글이 모두 연행 이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겪은 박제가의 좌절감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초고 집필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박지원의 서문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던 것 같다.

27) 안대회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외편 『북학변 1』, 232면: “余自燕還, 國之人士踵門而請曰, 願聞其俗. 余作而曰, 子不見夫中國之緞錦者乎, 花鳥龍文, 閃爍如生, 咫尺之間, 舒慘異態, 見之者不謂織之至於斯也. 其與我國之綿布經緯而已者, 何如也. 物莫不然, 其語文字, 其屋金碧, 其行也車, 其臭也香, 其都邑·城郭·笙歌之繁華, 虹橋綠樹殷殷訇訇之去來, 宛如圖畫. ... 皆茫然不信, 失所望而去, 以爲右袒於胡也.”

28) 위의 책, 외편, 『북학변 2』, 237면: “其不信我而信彼之由, 可知也已. 今人正以一胡字抹殺

이렇듯 박제가는 자신과 사회 사이의 소통 단절을 선진 문물을 경험한 자신과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힌 대다수 조선인의 대립 구도로 그리고 있지만, “북학변”에 기록된 다른 사례는 그것이 단순히 객관적 경험과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선입견 사이의 대립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박제가가 보기에, 조선 사람들에게는 청나라 사회에 대해 그들이 선호하는 경험, 신뢰하는 정보원이 따로 있었다.

[청나라에 대해] 백성의 성씨를 황제가 낙점한다는 낭설도, 책을 진흙 판으로 찍는다는 낭설도 떠돈다. ... 아주 친해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안건만은 나를 믿지 않고 저들의 말을 믿는다. ... 내가 예전에 사람들에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힘주어 주장한 적이 있다. 그들은 끝내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아무개 역관(譯官)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자네가 아무개 역관과 친분이 깊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친하던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그 역관과 친분이 깊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닐세”라고 답했다. 나는 이렇게 대꾸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을 했구려.”<sup>29)</sup>

청나라가 통치하는 북경으로의 사행(使行)이 이미 한 세기 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청조 중국에 대한 조선인들의 경험도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음을 생각한다면, 박제가와 박지원이 한 일은 이전의 익숙한 경험과 충돌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제시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충돌하는 경험 중에서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박제가의 것인가? 아니면 인용문에 언급된 어느 역관의 것인가? 문제는 박제가가 이러한 공약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경험과 그에 입각한 문화적 의제를 사회에 설득할 전략이나 기법을 고안하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역관”과의 신뢰도 경쟁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일화를 기록한 뒤, 박제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쭙을 추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어쭙의 관점에서 보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지혜의 기준으로 잴다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내가 여러 번 남들과 논쟁을 했는데 나를 비방하는 자가 제법 많았다. 그래서 이 글

天下, 而我乃曰, 中國之俗, 如此其好也.”

29) 위의 글, 237-238면.

을 써서 내 자신을 경계하고자 한다.”<sup>30)</sup> 박제가는 청중들이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이해할 소양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고,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중단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학의』 서문에서 박지원이 충고한 것이기도 했다. 중국 여행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박제가의 『북학의』를 읽고 난 뒤, 중국 사회에 대한 박제가의 관찰이 자신이 『열하일기』에 기록한 것과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박지원에 따르면, 그러한 일치의 원인은 그 둘이 연행의 경험을 공유한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 이것이 한갓 두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라서 그렇겠는가? 일찍이 비 내리는 지붕 아래, 눈 오는 처마 밑에서 연구한 내용과 술기운이 거나하고 등불 심지가 가물거릴 때 맞장구를 치면서 토론한 내용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기 때문이다.<sup>31)</sup>

요컨대, 그들은 이미 공동의 논의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각자의 연행에서 사후적으로 확인한 데 불과했다.<sup>32)</sup> 경험이 경쟁하는 관점 사이의 중립적 중재자가 될 수 없고 특정 의견을 공유하는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과는 애초에 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다. 박지원은 박제가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들은 당연히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화를 내리라. 화를 내는 본성은 편벽된 기(氣)에서 비롯되고, [우리를] 믿지 못하는 단서는 [중국의] 산천을 [여진족 땅이라고] 죄악시하는 데 있다.<sup>33)</sup>

30) 위의 글, 238면.

31) 안대회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북학의서』, 33면: “噫, 此豈徒吾二人者得之於目擊而後然哉. 固嘗研究於雨屋雪簷之下, 抵掌於酒爛燈炮之際, 而乃一驗之於目爾.”

32) 이정, 2020 『조선 후기 기술 지식의 실용성: 제지 관련 지식을 통해 본 실학』 『한국과학사학회지』 42-1, 125-161면은 확실한 지식의 기초로서 직접적 경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학파들의 기술 지식이 기본적으로 문헌 탐구에 입각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33) 위의 글, 33면: “要之不可以語人, 人固不信矣. 不信則固將怒我, 怒之性, 由偏氣, 不信之端.”

박제가의 “북학변”, 박지원의 “북학의서”에 담긴 수사 전략은 『북학의』가 저자의 개혁 의제를 청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저술된 책이라고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다. 왜 그들은 『북학의』의 예상 독자인 조선 엘리트 사회를 대화와 설득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수사학적 자살처럼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 박제가는 자신의 입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소규모 동료 공동체만을 청중으로 상정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이 책은 광범한 양반 엘리트 집단을 설득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비웃음으로써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여행가·경세가 공동체의 내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저술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조선 엘리트 사회를 넘어서는 더 높은 정치적, 문화적 권위에 호소하려는 전략이었을까?<sup>34)</sup>

#### 4. 북학론의 기술관과 중국 기술 도입 정책

앞서 언급했듯, 정조 대 초년에 제기된 북학론은 그 핵심 의제로서 청조 중국의 세련되고 효율적인 기술, 기물(器物)의 도입을 주장했다.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다루는 항목의 압도적 다수가 바로 청나라의 기술과 기물로서, 수레, 선박, 성제(城制), 주택, 벽돌, 교량, 종이, 무기, 가축 등을 포함한 40여 항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북학의』 내편 전체, 그리고 외편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외편의 나머지는 북학의 필요에 대한 일반적 논설, 과거제도의 개혁, 중국과의 통상 진흥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에 관한 논의를 싣고 있다.

북학론을 다룬 이전 연구가 대개는 외편에 실린 제도 개혁론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북학의』의 핵심은 내편 전체와 외편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 기술, 기물에 대한 논의에 있다.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

在罪山川.”

34) 『북학의』의 일부 이본에 편입되어 있는 『병오년 정월에 올린 소회』, 그리고 정조의 윤음에 대한 대응으로 올린 『진소본 북학의』는 군주 정조를 청자로 한 것이었다.

한 참된 장관(壯觀)은 깨진 기와 조각과 냄새나는 똥거름이었다는 박지원의 선언에서 드러나듯,<sup>35)</sup> 박제가, 박지원 등은 자신의 새로운 경세론과 문화적 지향을 구체적 사물과 기술에 대한 관찰, 그로부터 비롯된 통찰에 입각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중국과 조선의 비교

개별 기술, 기물에 대한 박제가의 논의는 대개 극도로 단순하고 정형화된 방식을 따른다. 그 핵심은 중국과 조선 사회의 비교에 있다. 그는 먼저 청나라의 사례에 대한 이상화된 서술을 통해 그 효율성과 세련됨을 부각하고는 그에 이어 조선 사회의 해당 기술 및 기물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을 통해 그 어리석음과 구차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조는 각각에 상이한 문체를 적용함으로써 극대화된다. 청나라에 대한 서술에서는 마치 도가적(道家的) 이상향, 아름다운 산수(山水)를 묘사하는 것 같은 문체를, 그에 비해 조선 사회에 대해서는 그 비루함을 풍자하는 문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선박의 제도에 대한 박제가의 서술이 그 예이다. 박제는 먼저 그가 중국에서 목격한 배의 효율적 구조를 일반론적으로 서술한다. “중국의 배는 내부가 깨끗하여 물이 한 방울도 없다. 곡식을 실을 때는 곧바로 배의 바닥에 쏟아 붓는다. 그 위에는 반드시 가로로 갑판을 가설하여 사람이나 말을 포함하여 물을 건너는 모든 것이 그 위에 앉는다. 빗물과 말 오줌 따위가 배 안에 전혀 고이지 않는다.”<sup>36)</sup> 중국 배에 대한 박제가의 찬탄은 그 효율성을 넘어 그 고아함과 세련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를 위해 그는 통주(通州)에서 직접 올라본 산둥(山東) 독무(督撫)의 배를 예로 들었다.

그가 탄 배는 크고도 아름다웠다. 사신과 나는 무관(懋官, 이덕무)과 함께 그 배에 올라가 보았다. 배는 길이가 10여 길이었다. 무늬를 꾸민 창이 달려 있고, 색깔한 다락집이 높다랗게 솟아 있었다. … (내부를 들여다보니) 서화와 패액, 휘장과 금침이 있었고, 향기가 자욱하여 깊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구불구불 가로막혀

35) 박지원(김철조 옮김), 2009 『열하일기』, 돌베개, 제1책, 『駙汎隨筆』, 253면.

36) 안대회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내편, 『배[船]』, 62면.

있어 얼마나 깊숙한지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물 위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마치 숲 속에 몸이 놓여 있고, 그림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는 느낌이었다.<sup>37)</sup>

중국의 배에 대한 이상화된 서술에 뒤이어 조선의 배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등장한다.

배는 물에 빠지는 것을 모면하자는 수단이다. 그러나 나무를 정밀하게 깎지 못하여 틈으로 새어드는 물이 언제나 (배에) 가득하므로 배를 탄 사람의 정강이는 냇물을 건너는 것처럼 (젓어 있다). (배 안에 고인 물을) 퍼내는 일에 매일 한 사람의 힘을 허비한다. … (배에) 앉을 때에는 짜리나무로 엮은 좌리를 사용하지만 울퉁불퉁하여 편치가 않다. 하루 동안에 배를 타고 여행하면 꿈무늬가 여러 날 동안 아프다. … 고생스럽기가 천태만상이라서 배를 타는 즐거움이 전혀 없다.<sup>38)</sup>

김대중은 박제가의 『북학의』에 담긴 중국과 조선 사이의 단순화된 대비를, 그와 같이 연행했던 이덕무의 좀 더 사려 깊은 비교와 비판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지만,<sup>39)</sup> 박지원이 “3일을 읽어도 싫증나지 않았다”고 찬탄한 『북학의』의 문학적 재미는 조선과 중국의 이러한 극적인 대비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40)</sup> 유려한 문장, 논의의 각 단계마다 표변하는 문체, 해학이 넘치는 풍자로 인해 『북학의』는 진지한 경세서로서보다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문화 비평 모음의 느낌을 더 강하게 준다.

하지만 중국과 조선의 극단적 대비는 세련된 문학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넘어

37) 위의 글, 63면: “其船大而麗, 使臣及余與懋官登焉. 船長十餘丈, 文窓彩閣, 屹然高峙. … 書畫牌額·帷帳衾枕, 芬馥幽深, 曲折遮掩, 窅不可測. … 悠然忘其爲水, 若寓身山林之間, 而遊目丹青之內.”

38) 위의 글, 64면: “夫舟船者, 所以救溺. 今削木不精, 隙水常滿, 舟中之脛, 如涉川然, 昏而棄之, 日費一人之力. … 坐用編荊, 艱兀不安, 一日船遊, 尻作數日痛. … 辛苦萬狀, 頓無乘舟之樂.”

39) 김대중, 앞의 논문(‘내부⇌외부’에 대한 두 개의 시선: 이덕무와 박제가).

40) 안대희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북학의서』, 33면. 정확히 말해, 박지원이 싫증을 내지 않은 이유로 언급한 것은 박제가의 서술이 『열하일기』의 서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논리적으로도 『북학의』의 경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에 대비한 조선의 극단적 후진성은 그 필연적 요청의 형태로 북학론의 핵심 의제인 “중국 배우기”[學中國]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 2) 중국 배우기

중국과 조선의 비교가 극단적인 만큼, 박제가에게 있어서 “중국 배우기”는 조선이 무조건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언명령에 가까운 지위를 지니게 된다. 『북학의』의 서문에서 박지원은 “중국 배우기”의 의제를 “어린 종이 나보다 한 글자라도 더 안다면” 그에게 배우는 태도, 즉 남이 지닌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는 여유로운 태도의 차원에서 제시했지만, 『북학의』에서 박제가의 실제 논조는 그보다는 자기 사회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에 가까웠다. 『북학의』의 기사들에서 박제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수레, 벽돌 제조 등 특정 기술에서 조선이 중국에 뒤처져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개별 기술의 낙후함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선 사회 전반이 처한 문화적 후진성이 표출된 사례들일 뿐이다.

조선의 주택 건설 기술의 낙후함을 다룬 뒤, 박제가는 다음과 같이 조선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백성들은 살아오면서 눈으로는 반듯한 것을 보지 못했고, 손으로는 정교한 기술을 익히지 못했다. 온갖 분야의 장인과 기술자들 또한 모두가 이 가운데에서 배출되었으므로 모든 일이 형편없고 거칠어, 번갈아들며 그 풍습에 전염되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재간과 고매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나타나도 이렇게 이미 굳어진 풍속을 타개할 방도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을 배우는 것[學中國] 외에는 방법이 없다.<sup>41)</sup>

즉, 박제가에게 “중국 배우기”란 기술적 정교함과 효율성의 문화가 전무하여 개선을 위한 내적 잠재력을 지니지 못한 조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제시되고 있다.

41) 위의 책, 내편, 『주택[宮室]』, 104면: “民生而目不見方正, 手不習精巧. 所謂百工技藝之流, 亦皆此中之人焉, 則萬事荒陋, 遞相傳染. 方是之時, 雖有高才明智之士, 此俗已成, 無由而破之矣. 然則將若之何, 不過曰, 學中國而已.”

이로부터 박제가의 기술 도입론이 지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그는 토착 기술의 개선과 개량보다는 외국(즉, 중국) 기술의 전면적 도입과 모방을 옹호했다. 그는 조선 장인들의 능력, 토착 기술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 사회는 문화적 불모지로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었다. 예를 들어, 수레의 경우 박제는 조선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수레의 채용을 주장하는 입장을 극력 비판하면서, 수레의 크기, 무게, 속도 등에 대해 세심하게 시험하고 연구한 결과물인 중국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조선 사회의 기술적 능력을 부정하고 중국 기술의 모방을 강조하는 논지는 박제가는 물론 18세기 말, 19세기 초 북학론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된 입장이었다. 그들은 중국 기술에 대해 토착 기술이 적어도 특정 측면에서는 장점을 지닐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레의 제도에 대해 정약용은 “새 제도를 창안하지 말고 오직 중국 제도를 모방해서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게 하여야 운행하는 데 결점이 없을 것”이라고 박제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이유 또한 중국은 고대 헌원씨(軒轅氏) 이후로 수레의 제도를 연구한 유래가 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sup>43)</sup> 조선의 특산물 종이에 대해서도 그들은 “서적을 인출하거나 글씨를 쓰기에 좋지 못하며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지 못하다”고 비판했다.<sup>44)</sup>

북학론자들은 외래의 기술이 조선의 사회문화적 맥락, 자연적 환경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 지역적으로 적합한 기술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극력 반대했다. 요컨대 그들은 기술에서의 “신토불이(身土不貳)”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자연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조선의 후진적 문화에서 비롯된 몽매한 생각이었다. 논란의 주된 쟁점은 수레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다. 1783년 정조에게 올린 북학 상소인 “진육조소”에서 홍양호는 수레 도입에 대해 사람들이

42) 위의 책, 내편, 『수레[車]』, 50-51면: “或云, 行車當隨意造車, 此不然. 凡車之大小·輕重·疾徐之分, 中國之人, 所以閱歷而相度之者, 亦已深, 只令巧工倣而行之, 務令尺寸不差, 必有合矣.”

43) 이익성 옮김, 『경세유표』 동관 공조 제6 사관지속 “典軌司”, 한길사, 제1책, 231면.

44) 위의 책, “造紙署”, 제1책, 243면: 안대희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내편, 『종이[紙]』, 169-170면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다.

산지가 많은 조선의 지세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우마(牛馬)가 희소하다는 반론을 자주 제기한다고 언급한 뒤, 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중국의 경우 조선보다 더욱 지세가 험한 곳에서도 수레가 문제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경험적 반증을 제기했고, 우마가 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번식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축 기술이 없고 우마를 부릴 때 그들의 본성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5)</sup> 이러한 홍양호의 논리는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이미 제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46)</sup>

### 3) 북학의 이론적 정당화로서 정약용의 “기술 진보론”

정약용은 「기예론(技藝論)」이라는 유명한 논설에서 토착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중국 기술의 도입에 주력해야 필요를 기술의 본성에 관한 일반적 통찰을 근거로 뒷받침했다. 그런 점에서 정약용은 앞 세대 북학론자들에 비해 좀 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면이 있다. 그의 “기예론”은 기술이 인류의 집단적 활동으로서 누적적으로 발전한다는 일종의 (서구적·근대적) “기술 진보론”을 개진한 글로 알려져 있지만,<sup>47)</sup> 이 글에서 정약용의 진정한 의도는 북학론의 중국 기술 도입

45) 『정조실록』 7년, 7월 18일: “人之恒言, 大約有二. 一曰道路之巖險也, 一曰牛馬之鮮少也. 臣請逐一辨之. 夫天下之險, 莫過蜀道, 而相如之赤車駟馬, 嘗過成都矣, 諸葛之木牛流馬, 亦行劍棧矣. 直以臣之所經言之, 則青石摩天之峻, 殆過於我國之洞仙嶺, 而車行無礙, 商旅相望, 舉一而可推其餘也. 然則道路之險, 不足憂也. 夫我東牛馬之鮮少, 非生畜之不殖也, 特由牧養之不得其方, 服乘之不順其性也.”

46) 예외적으로 박지원, 이희경은 용미차와 같은 서양식 수차에 대해 조선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중양, 1994 『조선 후기의 수차』 『한국문화』 15, 262-343면 중 320-325면. 그러나 이것이 기술에서의 풍토부동론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중양에 따르면 이들이 용미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실제 제작 및 시험의 실패 이후에야 나타난 태도였으며, 도입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를 제대로 제작할 정교한 장인이 조선에 없다는 점, 그것을 사용해야 할 농민들의 성질이 거칠다는 점을 들었다. 즉 목축 기술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가 아니라 조선의 저열한 문화가 문제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수차에 대한 북학론자들의 현실적 태도를 지적해 준 민병웅 군에게 감사한다.

47) 대표적인 예로 高柄翊, 1965 『茶山の 진보관: 그의 技藝論을 중심으로』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教史學論叢』,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佛教史學論叢刊行委員會, 669-678면; 김영호, 앞의 논문(정다산의 과학기술사상), 277-300면, 특히 285-291면 참조. 고병익의 경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었다. 정약용이 소위 “기술 진보론”을 정식화했다고 알려진 구절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지려(智慮)를 미루어 운용(運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정교한 생각으로 천착하는 것도 점진적이므로, 비록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천 명, 만 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고,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움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기예가 정교하게 되고, 세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기예가 더욱 공교하게 되니, 이는 사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촌리(村里)에 사는 사람은 현읍(縣邑)에 사는 사람에게 공작(工作)이 있음만 못하고, 현읍(縣邑)에 사는 사람은 명성(名城)과 대도(大都)에 사는 사람에게 기교가 있음만 못하며, 명성이나 대도에서 사는 사람은 경사(京師)에 사는 사람에게 신식묘제(新式妙制)가 있음만 못하다.<sup>48)</sup> (강조는 필자)

위의 글에서 드러나듯 “기예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세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정교해진다”는 정약용의 통찰은 진보하는 기술의 본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기술의 “지정학적 분포”에 항구적 불균형이 생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기술의 수준에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북학의 필요성, 즉 주변부는 필연적으로 중심부[京師]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경사에서는 “신식묘제”가 끊임없이 새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주변부 사람들의 중심부 기술 학습은 일회성의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항상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했다. 여기서 정약용이 말하는 기술의 중심부, “경사(京師)”가 곧 중국을 의미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 정약용의 기술 진보관은 기술이 침체하고 낙후한 조선이 아니라 근대 서양 학문과 기술의 도입으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던 중국의 현실에 입각해 있다고 해석했다. 즉 정약용의 기술 진보관이 궁극적으로는 근대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던 기술 진보의 먼 반향이었던 것이다.

48)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1 論, 「기예론 1」: “智慮之所推運有限, 巧思之所穿鑿有漸, 故雖聖人不能當千萬人之所共議, 雖聖人不能一朝而盡其美, 故人彌聚則其技藝彌精, 世彌降則其技藝彌工, 此勢之所不得不然者也, 故村里之人不如縣邑之有工作, 縣邑之人不如名城大都之有技巧, 名城大都之人不如京師之有新式妙制.”

우리나라에 있는 백공(百工)의 기예는 모두 옛날에 배웠던 중국의 법인데, 수백년 이후로 딱 잘라 끊듯이 다시는 중국에 가서 배워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신식묘제(新式妙制)는 날로 증가하고 달로 많아져서 더 이상 수백년 이전의 중국이 아닌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서로 모르는 것을 묻지도 않고 오직 예전의 것만 만족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그리도 게으르단 말인가.<sup>49)</sup>

요컨대, 경사와 촌리,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의 불균형은 기술 자체가 지니는 누적적 본성에 의해 조건 지워진 “사세(事勢)의 필연”으로서 그것이 역전되거나 주변부가 중심부를 “따라잡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소위 “기술 진보론”은 18세기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처럼 인류 기술 진보의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다거나 조선과 같은 주변부 나라도 그러한 인류 공동의 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논리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주변부 조선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중심부 중국의 기술을 배워 와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sup>50)</sup>

기술이 촌리, 현읍, 명성(名城)과 대도(大都), 경사(京師)로 이어지는 선형적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는 “촌리”의 사회문화적, 자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관념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었다. 정약용은 중국 기술 도입론에 대한 전형적 반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수레에 대해 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하다고 하고, 양을 기르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조선에는 양이 없다고 하며, 말에는 죽을 (먹어서는) 안

49) 위의 글: “我邦之有百工技藝, 皆舊所學中國之法, 數百年來截然不復有往學中國之計. 而中國之新式妙制, 日增月衍, 非復數百年以前之中國. 我且漠然不相聞, 唯舊之是安, 何其懶也.”

50) 그러나 조선의 주변부성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에서 그 불공평을 문제시하거나 박제가처럼 그에 대해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아마도 정약용의 개혁 사상에서 “기예”가 박제가에게서 만큼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기예론”에서 “효도와 우애는 天性에 근본하고, 聖賢의 글에 밝혀졌으니, 진실로 이를 넓혀서 충실하게 하고, 닦아서 이를 밝힌다면 곧 禮義의 풍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진실로 밖으로부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또한 뒤에 나오는 것에 힘입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도와 우애는 누적적 진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대 성현의 글을 읽고 자기 마음의 수련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므로, 북학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1, 論「기예론 3」. 이는 利用厚生을 正德의 필수적 전제로 제기한 박제가, 박지원의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된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풍토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니,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장차 어찌할 것인가!”<sup>51)</sup>

#### 4) 조선 사회 개혁의 동력으로서 기술 도입

요컨대 18세기 말의 북학론은 단지 중국으로부터 수레, 벽돌과 같은 몇몇 선진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넘어서 조선 사회의 문화 전반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책 의제였다. 중국과 조선 사회에서의 기술과 기물은 각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체화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중국의 수레, 벽돌, 성곽, 다리, 가옥은 중국 사회 제도의 효율성, 모든 것을 법식에 맞게 실천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세련됨을 반영하는 물건들이었고, 조선의 기술과 물건들은 “아침저녁의 일조차 걱정하지 않고 일정한 의지가 없는” 백성, “변치 않고 유지되는 법령이 없는”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다.<sup>52)</sup>

사회 내에서 기술과 문화가 서로 조건 지우는 관계를, 박제가는 특정 기술의 저열함이 풍속으로 확산되어 굳어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 장인이 (물건을) 거칠게 만들자 그것에 쫓아든 백성들이 거칠게 (일하고), 처음에 그릇이 거칠게 (만들어지자) 그것에 길들여져 마음이 거칠어졌다. (그런 태도가) 이리저리 확산되어 풍속으로 굳어졌다. 자기(瓷器)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자 나라의 온갖 일들이 모두 그것을 본받으니, 물건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여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것이 이와 같다.<sup>53)</sup>

51) 정약용, 『다산시문집』 권11, 論「기예론 2」: “有說車者曰我邦山川險惡, 有說牧羊者曰朝鮮無羊, 有說馬不宜粥者曰風土各異, 若是者吾且奈何哉.” 정약용의 기술사상에 대해 연구한 송성수는 “중국의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고 수용할 것”을 주장한 박제가에 비해 정약용의 경우는 외국 기술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소화하고 변경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정약용은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토착화를 강조하는 논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송성수, 앞의 논문(丁若鏞의 技術思想), 275면.

52) 안대회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내편, 「벽돌[甃]」, 80면: “我國之人, 曾無朝夕之慮, 百藝荒蕪, 日事紛紛, 民以之而無定志, 國以之而無恒法, 其原皆出於姑息, 殊不知姑息之害, 至於民窮財竭, 國不爲國而後已.”

53) 위의 책, 내편, 「자기[瓷]」, 95면: “始也工麤, 習焉而民麤, 始也器麤, 熟焉而心麤, 轉輒成俗, 一瓷之不善, 而國之萬事皆肖, 其器物之不可以小而忽之也如此.”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조선 사회의 문제는 “사소해 보이는 기술과 물건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기인했다.<sup>54)</sup> 따라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지점이 어디인지도 분명했다. 사회 문화와 기술 사이의 밀접한 상호 영향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박제가가 기술 결정론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낙후한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관건은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 있었고, 그런 점에서 양반 사대부들이 사소하다고 무시하는 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이 그에게는 중요했다.

북학론에서 선진 기술 도입론은 말하자면 낙후한 기술과 무기력한 문화가 서로를 조건 지우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조선 사회를 “도약(take-off)”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sup>55)</sup> 효율적 제도와 세련된 문화의 산물인 중국의 기술과 물건은 무력한 조선 사회를 깨울 문화적 계몽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토착 기술을 개선하자거나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자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었다. 정약용이 수레 도입 문제에서 강조했듯,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털 끝 만큼도 어긋남이 없게” 모방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이는 단지 그것이 더 효율적인 기술이어서만이 아니라, 중국 기술의 모방을 통해 조선 사람들이 그에 체현되어 있는 세련된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중심부의 기술은 주변부 사회의 문화적 개혁을 불러일으킬 주된 동력으로 간주되었다.<sup>56)</sup>

##### 5) 국가(정부) 주도의 기술 도입론

선진 기술의 계몽적 힘에 대한 북학론자들의 믿음은 정책 의제로서 북학론이

54) 이는 중국의 壯觀이 기와 조각과 뚝거름에 있다고 주장한 박지원의 태도와 상통한다.

55) 20세기 중반 로스토우(W.W. Rostow) 등 미국 근대화론자들은 비서구의 낙후한 “전통 사회”를 도약(take-off)시켜 미국과 같은 근대 사회로 변화시킬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Michael E. Latham, 2000 *Modernization as Ideology: American Social Science and “Nation Building” in the Kennedy Er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특히 제2장 참고.

56)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 북학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과 반대로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측면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진 사회의 기술이 후진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그들은 중국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국가(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기술, 물건을 도입해 오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식을 통해 그것을 시험 제작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간 영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우선 현실적으로 청조 중국과의 교류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북학론자들은 기술 도입의 주된 방식으로 연행 사절 편에 재능이 있는 장인을 파견하여 기술을 배우고 물건을 구매해 오는 방식을 권장했다.<sup>57)</sup>

하지만 북학론자들에게 정부의 역할은 단지 기술 도입의 루트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았다. 선진 기술의 도입과 모방은 애초부터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반듯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조선의 기술자, 양반 사족,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중국 기술의 도입이란 몽매한 백성을 계몽하는 사업이었으며, 따라서 백성보다 먼저 계몽된 존재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다. 이러한 계몽자로서의 역할은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의 표준이 채택·유지되도록 강제하는 일,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 등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수레의 사사로운 제작을 엄금하고, 중국에서 도입한 수레의 모델을 “전궤사(典軌司)”라는 관청에서 독점 제작하여 전국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중국의 모델로 전국의 수레를 통일하고 그에 맞게 도로의 폭도 규격화함으로써 “거동궤(車同軌)”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sup>58)</sup> 벽돌의 제조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박제가는 정부가 벽돌을 후한 값으로 구매해주는 “시장 개입” 정책 없이는 초기에 벽돌 제조업에 뛰어든 장인들이 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sup>59)</sup>

57) 북경에서 배우기 어려운 선박 제조 기술의 경우 박제가와 정약용은 예외적으로 중국에 사람을 파견하는 대신 조선 해안에 표착하는 외국 선박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58) 이익성 옮김, 『경세유표』 동관 공조 제6, 사관지속, 『전궤사』, 232-233면.

59) 안대희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내편, 『벽돌[甃]』, 78-79면.

체계적인 것을 선호하는 정약용은 정부 주도의 기술 도입 정책도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도화하고자 했다. 『경세유표』에서 그는 공조(工曹) 아래에 북학을 전담할 기구로 “이용감(利用監)”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용감의 핵심 관료는 4명으로 구성된 학관(學官)으로서 사역원(司譯院)과 관상감(觀象監)에서 각각 중국어와 수학에 정통한 두 사람씩 선발하여 충원될 것이었다.<sup>60)</sup> 이들이 매년 중국에 들어가서 “구들 놓기, 벽돌 굽기, 수레 만들기, 그릇 만들기, 쇠 불리기 …” 등의 기술을 배워온 뒤, 이를 다시 숨씨 있는 장인들에게 전수하여 시제품을 제조하게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습득된 기술은 공조에 소속된 다른 전문 기술 관서들, 즉 성을 수축하는 수성사(修城司), 화폐를 주조하는 전환서(典圜署), 수레를 제작하는 전계사, 기와를 만드는 견와서(甄瓦署), 종이를 제작하는 조지서(造紙署) 등에 공급하여 실용화하고 전국에 보급하게 한다.<sup>61)</sup>

북학론자들이 정부 주도의 중국 기술 도입 및 확산을 강조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일단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박제가, 정약용 등은 여러 곳에서, 자신의 제안대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10년을 넘지 않아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며,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도 강해져서 다시는 천하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자신감을 내비쳤다.<sup>62)</sup> 이는 일견 자신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하려는 뻔한 수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들의 기술관 자체에 기술 도입의 구체적 방식과 이후의 정착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 중국 기술의 선진성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일단 정부가 노력하여 도입, 장려한다면 기술자, 관료, 백성들이 그 이점을 곧 깨닫게 될 것이고, 따라서 도입 기술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조선 사회의 변화는 시간 문제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었다. 요컨대 그들에게는 조선 사회의 구체적 환경에 의해 기술 도입 정책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60) 이익성 옮김, 『경세유표』 동관 공조 제6, 사관지속, 『利用監』, 220-221면.

61) 정약용이 북학의 기술도입 정책을 체계화했다는 지적은 송성수, 앞의 논문(丁若鏞의 技術思想), 275면.

62) 이익성 옮김, 『경세유표』 『利用監』, 221면의 표현이다.

없었다.

그 결과 조선 사회의 낙후한 현실에 대해 북학론자들이 제기한 비판의 과격함에 비해 그들이 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제시한 구체적 방책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체계화된 정책안을 내세운 정약용의 경우조차도, 그리 혁신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대중국 사행 편에 사람을 파견하여 기술을 배워오자는 발상은 이미 한국사에서 그 유래가 오래된 관행이었고, 가까운 예로 청나라의 시헌력이나 염초 제조법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배워온 바가 있었다. 정약용의 이용감(利用監)에서 기술도입의 핵심 역할을 맡은 학관이 관상감의 일관(日官)과 사역원의 역관(驛官)으로 구성된 것 또한 시헌력 도입 프로젝트에서 17세기 중반부터 채택되어오던 방식을 좀 더 체계화, 공식화한 것에 불과했다.<sup>63)</sup> 북학론이 많은 이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받는 특정 기술의 도입 정책으로 제안되는 한 그것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 5. 북학 정책의 실천 - 맺음말

북학론을 포함한 조선 후기의 실학이 권력에서 소외된 재야 학자들의 개혁안으로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20세기 실학 서술의 통설이 최근 상당히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북학의 기술 도입론에 관한 한 상황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정조, 순조(純祖) 대에 북학의 의제가 정부의 실제 정책이나 일부 양반 관료들의 사적 프로젝트로 추진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수차의 제작과 보급, 중국 동북 지방의 농법 도입 시도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sup>64)</sup> 이와 같은 개별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 졌지만, 이를 북학론의 적용 사례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경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북학론이

63) Jongtae Lim, 2014 "Journeys of the Modest Astronomers: Korean Astronomers' Missions to Beijing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Extrême-Orient Extrême-Occident* 36, pp.81-108.

64) 문중양, 앞의 논문(조선 후기의 水車); 정명현, 앞의 논문(서유구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 창출론).

정책 제안의 차원을 넘어 실제 적용된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 홍양호의 사례는 북학의 의제가 어떻게 실제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는지의 과정과 동시에 어떻게 그것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서얼 출신의 하급 관료였던 박제가와는 달리 홍양호는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자신의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정조 7년(1783) 7월, 동지사행의 부사로 연행하고 돌아온 홍양호는 정조에게 이른바 “진육조소”로 알려진 상소를 올렸다. 당시 대사헌(大司憲)의 직위에 있던 그는 이 상소에서, 이미 박지원, 박제가 등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논법을 쓰면서 정부 주도 하에 청나라 문물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한 뒤, 수레와 벽돌의 제도 도입을 포함한 여섯 조목의 구체적 정책 제안을 개진했다.<sup>65)</sup> 이 사건은 소위 “북학”의 의제가 조선 정부 고위 관료에 의해 국왕에게 올리는 상소의 형태로 공식 개진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임금과 조정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정조로부터 홍양호의 제안을 검토하라는 명령을 받은 비변사(備邊司)는 여섯 가지 제안 중에서 수레 및 벽돌 제조법 도입, 당나귀와 양의 도입, 중국어 학습의 강화 등 네 항목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연행사절 편에 군문(軍門)에서 기교 있는 자를 차출하여 중국에 보내어 수레의 제도와 벽돌 제조법을 배워오게 하고, 의주부에 명하여 당나귀와 양을 무역해온 뒤 번식시키자는 것이었다.<sup>66)</sup> 그해 9월 동지사의 파견을 앞두고, 수레와 벽돌 기술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이 조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홍양호의 제안은 실제 추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sup>67)</sup>

하지만 연대기 기록에서 관련 사안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정조 14년(1790) 3월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적어도 수레의 도입에 관한 한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수레 도입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

65) 『정조실록』 7년(1783) 7월 18일.

66) 위의 글.

67) 『승정원일기』 정조 7년 9월 20일.

가 강력히 제기되었고, 정조도 그 비판론에 동조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제기된 반론이 이미 7년 전의 “진육조소”에서 홍양호가 하나하나 반박했던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날 수레 도입론의 강력한 반대자로 나선 것은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이었다. 그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세 상 수레가 통행하기 어렵다는 수레 사용에 대한 일반적 반론에 덧붙여, “만약 수레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세(田稅)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제시했다. 수레를 통행시키려면 농경지 가운데로 도로를 닦고 확장해야 하므로 경작지 면적이 줄고 그만큼 세수(稅收)가 줄 것이라는 논리였다. 수레가 “이용후생의 도구라고 하지만 도리어 국용(國用)과 민식(民食)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sup>68)</sup> 이에 대한 홍양호의 반론은 굳이 경작지를 줄여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말로 수레를 끌게 하여 조선의 좁은 도로에 맞게 운용한다면 무방”할 것이었다.<sup>69)</sup> 이에 정조는 화제를 말의 사용 문제로 전환시켰다. 왜 말 등에 짐을 직접 싣지 않고 수레를 끌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서도 채제공이 홍양호의 비판자로 나섰다. 중국은 당나귀와 말이 잘 번식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마정(馬政)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의 경우는 수레를 끄는 데 말이 아니라 소를 사용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양호는 “우리나라에서 말이 귀한 것은 말을 짐을 싣는 데[馱卜] 쓰고 수레를 끌게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했다. 말이 피곤하여 병약해져서 번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70)</sup> 정조는 홍양호에게 전혀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는 홍양호가 “문인(文人)이어서 종내 소환

68)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3월 11일: “濟恭曰, 如欲用車, 則我國田稅, 必多減縮矣. 上曰, 何謂也. 濟恭曰, 中國則九街八達, 平遠坦直, 固合運軌之形便, 而我國地勢, 本自欹側險狹, 村野阡陌之間, 無非田畝連境之地, 雖小小農車, 固不可容運, 況欲運任載之大車, 則必割田爲道, 然後可以行矣. 田縮則稅縮, 固其勢也. 未見車利而徒減田稅, 則車者所以利用厚生, 而反有損於國用民食矣.” 채제공의 반론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박제가의 『북학의』에 이러한 논리를 비판하는 홍대용의 논의를 인용해 놓았던 것이다. 안대희 옮김, 『완역 정본 북학의』 내편, 『수레』, 60면.

69)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3월 11일: “良浩曰, 臣意則以爲不然矣. 我國道里, 自有尺量, 而車制亦有大小, 不過修治已定之尺量, 而以馬駕車, 量路運用, 似無所妨矣.”

70) 위의 글: “良浩曰, 我國之馬貴者, 政以專用馱卜, 而不知駕車, 故馬多玄黃, 不得繁殖矣.”

(疎闊)함을 면치 못했다”고 꼬집은 뒤 수레 도입 정책을 일단 중지하라고 명령했다.<sup>71)</sup> 요컨대, 체제공과 정조는 수레의 도입이라는 북학의 대표적 의제에 대해 조선 사회의 여러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문인의 순진한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북학론자와 체제공의 대립에는 수레의 이용 가능성과 이점에 관한 현실적 판단의 문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과 그 속에서 기술의 위치에 관한 한층 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초부터 수공업 기술에 대한 조선 조정의 관심은 무기, 종이, 그릇, 옷감 등 조정과 왕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된 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조선 초에는 이를 위해 다양한 작업장을 중앙 및 지방 관청의 관할 하에 설치하여 장인들의 부역 노동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게 하는 관영 수공업 체제를 채택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의 가혹한 착취를 이기지 못해 장인들이 도주하고 민간 수공업이 성장함으로써 관영 수공업 체제가 붕괴하자 정부는 장인들을 고용하거나 어용 상인을 이용하여 민간 수공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했다.<sup>72)</sup> 조선 전기와 후기 사이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정부와 관료들의 소극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물론 중국에서 좀 더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기술의 개선을 통해 특정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 성곽의 수축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작업에 수레가 도입되어 그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수원 화성의 건설에서 정조의 지시에 따라 정약용이 설계한 기계들이 제작되어 이용된 것도 그 한 사례이다.<sup>73)</sup>

하지만 북학론자들이 요구한 것은 그 이상의 변화였다. 그들은 몇몇 주어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레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전 사회에 수레를 유통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71) 위의 글: “上曰, 卿文人, 終不免疎闊矣. 姑舍是, 更陳廟謨, 可也.”

72) 홍희유, 1979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강만길, 1984 『왕조전기의 工匠制와 私匠』,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 한길사, 15-77면; 김영호, 2003 『수공업의 발달』,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3: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59-187면.

73) 윤용출, 2013 『조선후기 수레 보급 논의』, 『한국민족문화』 47, 269-329면.

이 그리고 있던 적극적이고 개입적 정부에게는 조선 사회의 기술 수준 전반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조선 후기 관영 수공업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정부의 기술 수요의 상당 부분을 민간 수공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 대해 북학론자들은 기술을 이렇듯 민간의 영역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셈이다.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이용감을 필두로 한 기술 관청의 체계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은 당시 붕괴된 관영 수공업 체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자, 나아가 그 관영 수공업 체제에 조정과 왕실의 내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기술 수준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sup>74)</sup> 요컨대 정조가 수레의 도입을 고집하는 홍양호를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문인이라고 비판했을 때, 그가 거부한 것은 수레의 도입 하나의 사안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거부한 것은 바로 상품의 질과 양 모두에서 일상의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강력하고 개입적인 국가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학의 지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히 20세기에 들어 한국 사회에서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낙후한 한국 사회의 잠재력에 대한 극단적 비판론, 조선의 내재적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박제가의 관점은 이른바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강조한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력과 중첩되어 증폭되었다. 1960-70년대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강력한 국가 주도의 근대화, 산업화, 과학화 정책의 단서도 『북학의』와 『경세유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후반 한국의 개발 국가는 적어도 그 기본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조선 후기의 북학론까지 그 기원을 소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역사학자들은 북학론을 한국 근대의 기적적 선구자로 칭송했지만, 역사학자들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18세기 후반 조선과 현대 한국 사이의 연결과 계승 관계를 강화한 면이 있다. 기적이 아닌 것이다.

74) 그런 점에서 정약용의 이용감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일련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비슷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1966년 KIST를 필두로 하여 1970년대에 걸쳐 화학, 에너지, 전기전자 등의 분야별로 설립된 출연연구소들은 기술적 능력이 취약한 민간 기업을 대신하여 선진 기술을 수입한 뒤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문만용, 2017 『한국 과학기술 연구 체제의 진화』, 들녘, 95-209면.

18세기 후반과 현대 한국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 고리는 박제가의 시기에 선진 사회로의 여행이 한국 엘리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의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박제가에 따르면 조선은 신라의 최치원 이래로 중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문명화해야 할 나라였다. 따라서 박제가에게 있어서 북학이란 1644년 이래 그의 시대까지 100여 년 지속된 짧은 비정상적 상황, 즉 조선이 자신을 문명이라고 간주해온 일탈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향은 18세기 후반 당시에는 소수의 입장이었지만 19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한국 엘리트의 주된 문화적 지향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19세기 말 이후 조선인 엘리트의 여행 목적지, 따라서 조선 사회 개혁을 위한 문명의 모델은 중국에서 일본과 서구로 달라졌다. 외래의 모델로 자기 사회를 바꾸려는 북학과 서구적 근대화의 지향은 그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 또한 동반했다. 중국의 모델을 도입할 때 조선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18세기 말 채제공과 정조의 반론, 무분별한 서구화를 비판하고 외래의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적합하게 토착화해야 한다”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익숙해진 “자주적” 지향이 그러한 사례들일 것이다.

주제어 : 북학론, 기술 정책, 박제가, 정약용, 『북학의』

투고일(2020. 3. 16), 심사시작일(2020. 4. 9), 심사완료일(2020. 4. 29)

〈Abstract〉

## The Northern Learning Policy for Introducing China's Technology and Its Rhetorical Strategy in Late Joseon Period

Jongtae Lim \*

Defining the Northern Learning discourse in late Joseon period as a set of policy agenda aiming at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of th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the Northern Learning's technology policy and its underlying socio-cultural assumptions. Previous research paid little attention to this issue, focusing largely on the socio-political thoughts of the Northern Learning. A few exceptional research on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the Northern Learning undervalue it, on the grounds that the Northern Learning scholars failed to develop an highly abstract theory of technology. This negative evaluation, however, reflects the researchers' failure to examine the rhetorical strategies taken by the Northern Learning scholars in formulating their policy agenda. This paper views the Northern Learning not only as a new sociocultural reform vision but also as a sign for the emergence of a new kind of elites who promoted the reform vision. The Northern Learning proponents positioned themselves as a new brand of elites to carry out the impending reform, and then suggested as the essential marks that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the existing *yangban* elites their privileged travels to Beijing, the alleged center of civilization. As traveler-cum-reformers, they formulated their technology promotion policies, mainly as a set of inevitable lessons from their travel experience, rather than as an outcome of a theoretical research.

**Key Words :** The Northern Learning, technology policy, Bak Jega, Jeong Yak-yong,  
*Proposal for the Northern Learning* (Bukhak ui 北學議)

---

\* Professor,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